나태주 시인, 사랑과 위로를 전하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176개 시편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저. 1만4000원. 열림원.

나태주 시인이 시집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로 돌아왔다. 3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176개의 시편이 담겼다.

나태주 시인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2년간 독자들의 안식과 행복을 빌며 시를 썼다.

시인은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다독이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새롭게 철들게/ 하는 것'('다시 포스트코로나')이라고 깨우친다.

시집에는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시인 출신 동명 스님·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피아니스트 손열음·방탄소년단 등에 대한 시도 담겼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온 하늘의 손님/ 울려서 돌려보낸 우리/ 다만 여기 와 무릎 꿇어요'('길 잃은 천사-정인아기의 영혼을 위하여')

'세계인의 가슴에 노래를 심고/ 세계인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 가꾸는 마음의 정원사들'('사람의 별-BTS, 방탄소년단')

나태주 시인은 1945년 3월 16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로 등단했다. 공주사범학교 졸업 후 43년 동안 초등교사로 활동했고, 장기초등학교장을 끝으로 2007년 정년퇴임했다. 교사직에서 퇴임한 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풀꽃'이 있다. 공주문화원 이사, 계간 '불교문예' 편집주간, 격월간 시 잡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주간, 지역문학인회 공동좌장,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미 기자 kmkim@skyedaily.com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 양반들의 일상



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박정혜 저. 5만9000원. 혜화1117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 나왔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과 왕실의 그림을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된 데에 미술사학자 박정혜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누구보다 일찍 조선시대 기록화, 궁중회화, 채색화 분야에 관심을 가진 그의 꾸준하고 묵묵한 탐구로 인해 문인화, 수묵화 위주였던 한국 미술의 세계는 한층 확장됐다.

어느덧 궁궐과 관청에서 제작한 다양한 기록화, 아름다운 채색화는 우리 미술사의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됐다. 박 미술사학자는 조선의 양반들이 남긴 이른바 사가(私家)기록화의 세계를 우리 앞에 또다시 펼쳐 보인다.

이미 오래전 궁중기록화 탐구에 몰두하던 때부터 이미 다음 과제로 염두에 두었을 만큼 그에게 사가기록화는 오래전부터 현재진행형이었다. 한국 미술사의 인기 있는 주제들 사이에서 주로 참고도판으로만 여겨지던 채색화·기록화 분야에 눈길을 둔 지 어느덧 30여 년이다.

박 미술사학자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 길을 걸어왔으며 마침내 기대에 부응하는 성취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가 한 발 한 발 닦아 온 그 길을 통해 마침내 우리 앞에 이전에 보지 못한 한국 회화사의 새롭고 드넓은 세계가 장대하고 아름답게 펼쳐졌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영조 대의 잔치 그림', 'Court Painting from the Joseon Dynasty' 등이 있다.

김경미 기자 kmkim@skyedaily.com

뮤지컬 '엘리자벳' 눈부신 라인업

옥주현·신성록·김준수·이지훈 등 화려한 캐스팅

10주년 기념 8월25일 첫 공연… 압도적 피날레 예고



뮤지컬 '엘리자벳'이 10주년 공연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EMK

뮤지컬 '엘리자벳'이 10주년 공연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14일 뮤지컬 '엘리자벳'의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가 옥주현·이지혜·신성록·김준수·노민우·이해준·이지훈·강태을·박은태·민영기·길병민·주아·임은영·진태화·이석준·장윤석· 문성혁·김지선 등 화려한 라인업 캐스팅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 황후 '엘리자벳'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죽음(Der Tod)'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역사적 사실에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시킨 매혹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테디셀러 대작이다.

2012년 초연 당시 단숨에 15만 관객을 동원하고 각종 뮤지컬 어워즈의 상을 석권한 뮤지컬 '엘리자벳'은 매 시즌마다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매진의 전설을 이어온 바 있다. 8월25일부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은 다섯 번째 시즌은 이번 '엘리자벳' 프로덕션을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간의 노하우를 총 집결한 압도적 피날레를 예고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엘리자벳'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중 회전 무대와 3개의 리프트, 그리고 '죽음(Der Tod)'이 등장하는 11미터에 달하는 브릿지 등의 무대세트를 비롯해 연출·의상 등 이번 '엘리자벳' 프로덕션은 10주년 기념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거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고 있는 엘리자벳 역에 옥주현과 이지혜가 출연한다. 엘리자벳의 주위를 맴돌며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그녀를 유혹하는 죽음(Der Tod) 역에는 신성록·김준수·노민우·이해준이 무대에 오른다.

엘리자벳을 암살한 희대의 살인마 루이지 루케니 역에 이지훈·강태을·박은태가 캐스팅 소식을 전했다. 엘리자벳에 대한 순애보를 보여주는 황제 프란츠 요제프 역에는 민영기·길병민이 출연한다.

프란츠 요제프의 어머니이자 엘리자벳과 갈등하는 인물인 대공비 소피 역에는 임은영·주아가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인 황제 프란츠 요제프와의 정치적 대립과 어머니 엘리자벳의 무관심 속에 방황하는 비운의 황태자 루돌프 역에는 진태화·이석준·장윤석이 캐스팅됐다.

김경미 기자 kmkim@skyedaily.com



뉴욕 브루클린 출신 4인조 인디록 밴드 '빅띠프'(Big Thief)가 한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하이징크스

뉴욕 인디록 밴드 '빅띠프' 11월 첫 단독 내한 콘서트

전위적인 사운드로 마니아층 두터운 인디밴드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프랑스 등 투어 순항 중

뉴욕 브루클린 출신 4인조 인디록 밴드 '빅띠프'(Big Thief)가 한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11월12일 홍대거리에 위치한 콘서트장인 '롤링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빅띠프'는 Saddle Creek Records를 통해 데뷔작 'Masterpiece'(2016)와 2집 'Capacity'(2017)를 발매했다. 그중 2집은 2017년 올해의 앨범 리스트에서 최상위권 (Flood Magazine 1위·NPR 3위·Spin 2위·Rough Trade 4위·Pitchfork 23위 등)에 들며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고, 수록곡 또한 드라마 '13 Reasons Why'·'Billions', 'The Umbrella Academy' 등에 삽입됐다.

2019년에는 3집 'U.F.O.F'로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 앨범(Best Alternative Music Album) 부문에, 2020년에는 4집 'Two Hands'의 수록곡 'Not'으로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록 노래(Best Rock Song)와 최우수 록 퍼포먼스(Best Rock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올 2월 발표한 정규 5집 앨범 'Dragon New Warm Mountain I Believe in You'는 더블 앨범으로, 총 20곡이 수록되어 장장 80분간 빅띠프의 가장 깊숙한 내면과 가능성을 들려준다.

2020년부터 기획되어 개인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서로를 선택한 가족으로서 밴드의 성장을 두서없이 담은 기록이기도 한 이번 앨범은 5개월간 녹음한 45곡 중에서 보다 마음을 울리는 20곡을 추려 듣기 편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완성됐다.

빅띠프는 2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독일·뉴질랜드·호주 등 활발하게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이다. 11월 12일 내한 콘서트에서는 최신 앨범인 5집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주요 대표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애수 넘치는 정통 포크록부터 일렉트로닉 사운드, 경쾌한 컨트리 등 익숙한 장르를 재해석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내 관객과 호흡한다. 콘서트 티켓은 6월21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경미 기자 kmkim@skyedaily.com

